

# 정우성...이제 정의의 아이콘으로

12·12 군사 반란 그린 작품서 '이태신' 역  
반란 주도 전두광 맞서 본분 다하는 인물  
“황정민 연기에 타죽을 것 같아...막막했다”  
“불확실 속 연기...아직도 불안하고 두렵다”  
“30년 간 소신 지키며 연기 이태신과 비슷”



“불안하고 두려웠죠.”  
“언제쯤 그 불안감과 두려움이 사라지던가요?”  
“아직도 이겨내지 못했어요.(웃음)”  
배우 정우성(50)에게 영화 '서울의 봄' 이태신에 관해 묻자 이런 말이 돌아왔다. 그는 일단 캐스팅 제안을 받아 들이긴 했는데, 어떻게 연기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12·12 군사 쿠데타를 극화한 이 작품에서 이태신은 등장 인물 중 가장 허구에 가깝다. 실제 인물을 참고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닌데다가 전두광을 맡은 황정민이 보여줄 연기는 상상만으로도 거대한 압박으로 다가왔다. “그 연기를 떠올려보는 것만으로도 타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태신은 전두광 대적점에 서었다. 전두광이 사육을 앞세워 권력을 탐한다면, 이태신은 군인으로서 본분을 지키며 공익에 봉사한다. 영화가 어느 한쪽 캐릭터로 기울어지지 않아야 긴장감이 유지될 수 있기에 이태신은 전두광과 맞서야 했다.

어떻게 연기할지 고민 중에 있을 때 김성수 감독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몇 해 전 정우성이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를 할 때 방송 인터뷰에 나선 영상이었다. 김 감독은 인터뷰 하는 정우성의 모습에 이태신이 있다고 했다. “감독님한테서 그런 영상이 계속 오니까 ‘이 행이 왜 이리나’ 이랬더니깐요.(웃음) 제 모습에서 뭘 보라는 건지 처음엔 감이 안 왔거든요.” 정우성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다. 인터뷰를 할 때 제 태도를 보라는 얘기라고 판단했다. “그때 아주 조심스럽게 임했어요. 단어 선택 하나조차 고민했죠. 아주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제 본분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자세가 이태신에 없었지길 원했던 것 같아요.”  
연기 방향은 정했지만, 불안감을 가시지 않았다. 이태신이 설득력 있는 캐릭터이길 바랐다. 일단 함께 연기하는 배우들이 이태신을 느끼길 바랐다. 매 장면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준비한 연기를 쏟아냈다. “이태신과 전두광이 복도에서 마주하는 장면을 찍을

때, 멀리서 황정민 형을 봤는데 큰일 났다 싶었어요. 강한 뭔가가 오더라고요. 제가 전두광을 느낀 것처럼 상대 배우도 이태신을 느끼길 바라면서 연기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형 표정을 보니까 이태신을 느낀 것 같았어요.” 육군참모총장을 연기한 이성민과 수도경비사령관 자리를 놓고 대화를 주고 받는 연기를 할 때도 그랬다. 매 순간 정우성은 불확실한 연기를 했다고 말했다.

“감독님이 그 불확실함 속에 저를 던진 거라고 봐요. 그 불확실함을 인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감독님이 보는 방향을 제가 알게 됐을 때 기분 좋더라고요.”  
고민에 고민을 거쳐 이태신을 연기한 정우성에겐 호평이 쏟아진다. 전두광에 분노하고 이태신에 감동 받았다는 게 관객의 일관된 평가다. 황정민은 현란한 연기로 전두광에 생기를 불어넣고, 정우성은 태산같은 연기로 이태신에 신뢰를 부여한다. 전두광이 어떤 약점이라도 찾아서 파고들 것만 같이 집요하고, 이태신이 전두광 무리의 공격을 어떻게든 막아낼 것만 같이 굳건해보이기에 '서울의 봄'은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목표한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황정민과 정우성은 그들의 캐릭터를 후반부로 갈수록 더 강화하며 이 영화를 궤적에 명중시킨다. “사실 관객 반응이 얼떨떨해요.”

요즘 정우성에게 따라 붙는 수식어는 정의의 아이콘이었다던 그는 '갈채비' 시리즈와 '헌트' 그리고 이번 '서울의 봄'을 거치며 정의의 아이콘이 된 듯하다. 온라인에선 '헌트'에 이어 '서울의 봄'에서도 전두광에 맞서는 인물을 연기한 정우성을 두고 '전두광 잡는 데 가장 앞장서는 배우'라는 밈(meme·인터넷에서 자주 소비되는 유행)이 돌고 있다. 실제로 그는 영화계에서 바른 성품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다. 정우성은 “빨리 정의로움을 던져버리고 가벼운 인물을 연기하고 싶다”고 했다.

“비트”를 통해서 저한테 청춘의 아이콘이라는 수식어가 씌어졌을 때도 그런 말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제가 청춘의 아이콘이 아니라 그때 연기한 ‘민이’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전 아이콘 그런 게 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럴 수도 없어요.”  
정우성은 관객이 이태신을 지지해주만큼 계속해서 이태신이 부담스러운 캐릭터로 남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이태신이 닮은 부분이 있다면 그건 소신일 거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했다. 30년 간 배우 생활을 돌이켜보면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새로운 걸 하려고 추구한 것이 그의 소신이었다. “전 제가 작은 씨앗이 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도전을 한 배우가 있었고, 그런 길을 가려는 이들에게 그래도 된다는 용기를 줄 수 있으면 합니다. 물론 저는 제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몰아가진 않아요.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을 계속 간직한 채 연기를 해나가는 것 뿐이죠.”

뉴스스

# ‘연인’ 안은진 “부모님도 길체라고 불리요”



‘슬의생’ 이어 또 하나의 대표작

배우 안은진(32)은 MBC TV ‘연인’으로 또 하나의 대표작을 남겼다. 대중에게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리즈(2020~2021) 산부인과 레지던트 ‘추민하’로 익숙한데, 연인을 통해 폭넓은 연령대 시청자를 사로잡았다. 특히 상대역인 남궁민(45)과 절절한 사랑 이야기가 눈물샘을 자극했다. 1년 가까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촬영했고, 추위를 이겨내며 피난신 등을 찍었다. 그만큼 쉬운 신이 없었지만 “연인도 했는데 못할 게 없다. 모든 게 행운 같다”며 행복해 했다.

“사실 난 (연인이 새로운 대표작이 됐다는) 잘 모르겠다. 늘 하는 작품마다 열심히 했는데, 주변 반응을 보고 아는 편이다. 예를 들면, 주변 분들이 나를 ‘추추’에서 ‘길체’로 부르더라. 현장에서 ‘길체’라고 불려왔다. 요즘 부모님도 ‘길체’라고 하더라. 추추도 있지만, 이제 길체라고 많이 불려줘서 느끼고 있다. 주 52시간제 도입 후 드라마를 시작했는데, 우스갯소리로 ‘선배한테 어디 가서 명함 내밀 수 있는 작품’이라고 했다. 힘들었지만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더라. ‘이게 되는구나?’ 싶었다.”

이 드라마는 병자호란의 병화 속으로 던져진 ‘이장현’(남궁민)·‘유길체’(안은진)의 사랑과 고난 속 희망을 일군 백성들의 이야기다. 두 달 간격을 두고 파트1은 8~9월, 파트2는 10월 부터 방송했다. 애초 20회로 기획했으나, 1회 등장해 막을 내렸다. 마지막 회에서 역도 몰린 장형은 관군에게 쫓겨 길체와 헤어졌지만, 극적으로 재회했다. 1회 시청률 5.4%(닐슨코리아 전국기준)로 시작, 21회 12.9%를 찍었다.

올해 MBC 드라마 중 유일한 히트작이다. 남궁민이 MBC 연기대상으로 거명되고 있다. ‘공동대상을 기대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욕심이 없다. 열렬하게 축하해주려고 한다. 난 뭐라도 주시면 감사하다. 선배를 많이 의지해서 응원하고 있다”며 “지상파 시상식은 처음이다. 부모님이 구경할 수 있도록 초대권을 빼냈다. 수상보다 1년 동안 한 작품이 사랑을 받아서 작품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궁민 선배는 똑똑하고 디테일하다. 어떻게 찍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라. 내가 흔들릴 때마다 명확한 해답을 줬다. 같이 하면 든든하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작업하니 늘 완성도 있는 작품이 나오는지’ 싶더라. 어깨 너머서 보며 많이 배웠다. 한 작품 내내 기복없이 늘 섬세한 에너지를 보여줬고, 파트너로서 굉장히 편했다. 내가 흔들려도 쪽 잡고 가고, 부족한 걸 이끌어줬다. 장형과 길체 연기 합이 착 붙일 수 있었던 건 선배 덕분이다.”

영화 ‘올빼미’(감독 안태진·2022) 등에서 사극을 경험했지만, 이렇게 긴 호흡은 처음이다.

초반엔 준비할 게 많아서 겁을 먹었지만, “캐릭터를 구축한 뒤부터 크게 어려운 것은 없었다”고 돌아봤다. “현장에 가니 모두 해결됐다. 머리 아파하고 고민하고 힘들어 해도, 현장에선 어떻게든 해결이 된다는 걸 알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부연했다. 물론 “늘 묶여있고, 맞고 일어나고 끌려 다녀서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건 사실”이라고 짚었다.

극중 전쟁통 속 새까만 얼굴 분장도 쉽지 않았을 터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점점 얼굴이 상했다. “끌려가기 전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촬영이 너무 힘들었다. 자고 일어나서 현장에 가면 거의 심장에 끌려간 사람 같았다. 그래서 더 동화됐다”고 귀띔했다. “퐁퐁 뛰는 애기 씨가 전쟁을 겪으면서 어떻게 변하느냐가 중요했다. 전쟁과 포로 이야기는 톤이 조금 달랐다”며 “전쟁할 때 다같이 때릴하는 게 좋더라. 얼마나 꼬질꼬질하게 살았는지 볼 수 있지 않느냐. 아무 거리낌 없이 분장을 받았고, ‘나중엔 더 해달라’고 했다”고 회상했다.

길체는 강한 생명력을 보여줬다. “몇 백년 전 역사적인 사건 안에 있었는데, 운명의 소용돌이 안에서 이겨내고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았다. 중간에 힘을 때마다 길체 덕분에 에너지를 냈다. 그런 대사를 내 입을 통해 하니 나머지도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더라. 나중에는 모든 캐릭터가 그랬지만 적하면 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촬영이 힘들었던 만큼, 배우·스태프도 푹푹 뭉쳤다. 스태프 사이에선 무려 아홉 커플이 탄생했다. 안은진 역시 남궁민과 “전우애가 쌓였다”고 할 정도다. “받은 일도 있었고, 받은 종방엔 때 알았다. 좀 더 커플이 많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종방엔 때 커플들 보니 행복하더라. 1년의 연인이 탄생했구나 싶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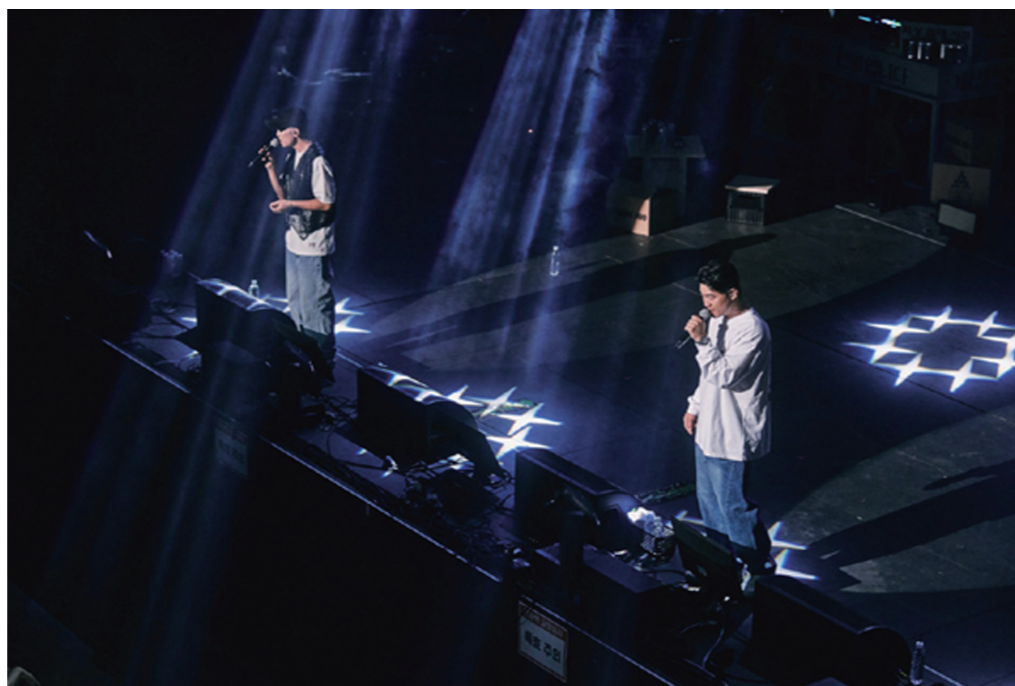
안은진은 2012년 뮤지컬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데뷔했다. 2018년 웹드라마 ‘숫자녀 계승자’를 시작으로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2019) ‘검사내전’(2019~2020) ‘나쁜 엄마’(2023) 등에서 연기력을 쌓았다. 무엇보다 연인을 통해 “뭘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링거를 맞고 시간 날 때마다 병원에 갔다”면서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다. 극본을 보면 특하면 특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돼 11개월간 달려올 수 있었다. 후반부로 갈수록 감정 연기가 많았지만 어렵지 않았던 이유다. 마지막 촬영하고 스태프 표정이 진짜 밝더라. 원래 ‘희식 하러 가자’고 하는데, ‘이제 자러 가자’고 하더라. 많이 헛헛할 것”이라고 했다.

“나의 연인을 찾고 싶지 않아요? 하하. 나는 솔로” 나가야 하나. 일과 사랑을 같이 할 수는 없느냐. “무한도전” 팬인데, 노홍철씨의 ‘일과 사랑, 사랑과 일이 뇌리에 박혔다. 같이 갈 수 있는 거구나’라고 느껴서 둘 다 열심히 하겠다. 2023년에는 나에게 특별한 해다. 작품이 잘되고 사랑 받았을 뿐 아니라 배우로서 자신감도 얻었다. ‘하면 된다’는 걸 목표로 깨달아서 2024년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연기하고 싶다. 전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라며 불안해 했는데, 이제 경력이 있어서 잘 해낼 수 있다.”

# 힙합 듀오 다이내믹 듀오, 역주행·챌린지 열풍 입증

4년 만에 단독 콘서트 성료

힙합 듀오 ‘다이내믹 듀오’가 4년 만에 연 단독 콘서트를 성료했다.  
28일 소속사 아메바컬처에 따르면, 다이내믹 듀오는 지난 24~26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단독 콘서트 ‘가끔씩 오래 보자’를 네 차례 공연했다.  
앞서 3회 공연만 예정됐으나 단숨에 매진돼 1회 공연이 추가됐다. 추가 공연 역시 30초 만에 매진을 기록했다.  
다이내믹 듀오는 이번 공연에서 최근 발매한 정규 10집의 Part.1 싱글 타이틀곡 ‘19’로 오프닝을 열었다. 이어 ‘이력서’, ‘불면증’, ‘고백(Go Back)’, ‘출처’ 등 히트곡 퍼레이드를 펼쳤다. 특히 올해 글로벌 역주행을 기록한 2014년 작 ‘AEO’와 각종 음원 차트 석권 및 챌린지로 열풍을 일으킨 최신 히트곡 ‘스모크(Smoke)’가 큰 호응을 얻었다.  
매 회차 등장한 깜짝 게스트는 공연장의 열기를 한층 높였다. 싸이는 3일 연속 출연으로 지원사격을 펼쳤고, 24일 예력하이, 25일 낮



공연에는 릴라말즈와 비와이, 저녁 공연에는 허성현, 성시경, 26일에는 크러쉬가 등장했다. 다이내믹 듀오는 앙코르곡으로 ‘밍 마이 벨’,

‘불타는 금요일’, ‘자니’를 선편했다. 한편, 다이내믹 듀오는 향후에도 다양한 활동으로 팬들과 만났다.

# 장동민 “포커로 1년에 1억5천 벌었다”

개그맨 장동민이 포커 대회 상금으로 1년에 1억5000만원을 벌었다고 밝혔다.  
29일 오후 10시30분 방송되는 MBC TV 예능물 ‘라디오스타’에서 장동민은 배우 박재정, 가수 정용화, 권은비와 함께 게스트로 출연한다.

장동민은 올해 국제 포커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고, 환경부 주관 장영 대전에서 우수상을 받는 등 본인인 개그맨 이외의 직업으로 뉴스에 등장해 대중을 놀라게 했다. 전 세계 최초로 세로형 라벨지를 개발한 그는 지난 1월1일 특허 법원을 낸 후 사업가로 승승장구 중이다. 특히 포커 플레이어로 활약하며 거액의 상금을 획득했다.

상금에 대한 질문을 받은 그는 “한 번에 5000만원, 누적 상금으로 1년에 1억5000만원을 벌었다”고 밝혔다. 이에 개그맨 유세윤이 프로게이머 출신 포커 플레이어 홍진호의 도발을 전하자 장동민은 “1년 365일 내내 대회장에 있는 애랑 견줄 바가 되겠다”며 일침을 가한다. 다만 포커가 2028년 LA올림픽에 시범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때 되면 국가대표로 출전하고 싶다는 욕망을 밝혀 흥



진호와의 정면승부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장동민은 25년 절친 유세윤의 마음을 지금까지 읽기 힘들다면서 “비꼬는 수준을 넘어서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관련 일화를 공개한다. 이에 대해 개그맨 김구라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유세윤은 “형, 나랑 포커 치면 내가 이기겠다”고 승자의 미소를 지어 웃음을 자아낸다.  
결론 3년 차 장동민은 “어이가 많을수록 좋은 사주”라며 둘째가 나오기도 전부터 셋째 계획을 밝힌다. 그는 예고가 많은 아내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아내의 정상인 모드에 식은땀을 흘린 일화도 공개한다. 또 서바이벌 프로그램 우승자로서 출연자가 아닌 프로그램을 기획 중인 근황을 공개했다.